

2 뉴스

2024 교육과정 개편 이수학점 축소 핵심

장해린 기자 sunblessyou@khu.ac.kr

2024학년도 전공 및 교양 교육 과정 개편사항이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핵심은 전공과 교양과목 신설 및 이수 요건 변화다.

전공과 교양 모두에서 이수 학점이 축소돼 졸업 학점이 줄어든다. 졸업 학점이 120학점인 인문·사회 계열과 예술·체육 계열 단일전공자는 전공필수와 선택을 40학점 이상, 다전공자는 본전공과 복수전공 과목을 각각 24학점 이상 이수하면 된다. 졸업 학점이 130학점인 이공 계열 단일전공자는 전공필수와 선택 42학점 이상, 다전공자는 각각 27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양과목은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배분이수 과목이 기존 4분야에서 ▲생명·인간 ▲분석·추론·논리 ▲지능·정보·미래 ▲사회·공동체·평화 ▲상징·문화·소통 5분야로 늘어난다. 2019년~2023학년도 입학생은 영역 구분 없이 12학점,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3개 영역에서 9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배분이수 14과목의 교과목명이 변경됐고 54과목의 이수 구분이 변경된다. 특히 인문·사회에 속해 있던 외국어 강의는 모두 자유이수 과목으로 변경된다. 주의할 점은 2023 및 이하 학번은 배분이수, 자유이수 간 영역 변경된 과목을 재 수강할 경우 기존 이수 영역으로 인정해준다.

또한 이번 학기부터 사회 및 관련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특정 역량 향을 위한 최소 단위의 교육인 ‘마이크로디그리’가 확대 시행된다. 기존 9학점 이수가 요구됐던 후마

주관 과목 AI/SW 마이크로디그리, 인공지능 마이크로디그리, 소프트웨어 마이크로디그리에 12학점의 ▲리터러시라이팅 마이크로디그리와 ▲예술체험심화 마이크로디그리가 신설되고, 기존 교양과목의 10% 이상이 학생 수요를 반영하는 신규 과목으로 교체된다.

이연우(스페인어학 2022) 씨는 “종합강의시간표를 보며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스페인어미디언번역〉이나 〈스페인어권 도시와 스토리텔링〉, 〈스페인황금세기 문학〉 같은 전공과목이 신설됐는데, 기존의 어학 관련 교육방식에서 벗어난,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방향으로 교육 과정이 개편되는 것 같아서 기쁘다”며 “이번 개편으로 마이크로디그리 과목이 많이 신설되고 분야가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후마 김진해 부학장은 “우리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젝트수업과 사회와 연계된 수업을 개발하고자 노력한다”며 “기능적인 교육보단 예술이나 창작, 체육 등 몸을 움직이는 교양과목을 많이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으로 많은 분야 및 교과목이 신설되었는데 후마는 앞으로 기술적인 교육 위주보다는 사회적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비전공자 학생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차차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이번 개편의 방향성에 “사회 수요를 반영하고 탄력적인 학사 구조의 방향성

교과목명 변경된 과목 목록

변경전	변경후
정신분석과 젠더	정신분석과 성차의 발전
기후위기와 직접행동	(SDGs)기후위기와 직접행동
이시대에 필요한 페미니즘 입문	우리시대 페미니즘의 의제와 전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론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개론
고전읽기:니체	고전읽기:차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여성주의 고전읽기	고전읽기:페미니즘
종교문화와 여성	다양성과 교차성의 젠더문화
평전읽기	고전읽기:평전
고전읽기:리처드도킨스	고전읽기:이기적유전자vs생명의음악
고전읽기:찰스다윈	고전읽기:종의기원
글로벌시대의 도시와 청년	(SDGs)글로벌시대의 도시와 청년
문학과 여성	여성의 문학 문학속 여성
씨네페미니즘 입문	씨네페미니즘의 롱테이크
스크린영어	영어시사토론

을 가지고 진행된 개편”이라며 “필수로 배정된 학점을 축소함으로 학생 선택권을 높이고자 하고 사회진출을 돕는 맞춤형 교육 과정과 현장 연계형 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우리학교는 4년을 주기로 교육부의 정책 방향이나 시대 요구를 반영해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 올해는 ‘학생의 자율성 강화’라는 교육부의 기준에 맞추어 개편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사회적 요구 반영과 교

육의 질 제고 ▲지식전달 중심의 교과과정에서 자기주도적·창의적 문제해결형 교육과정으로 전환 계기 마련 ▲사회수요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현장적응성을 높이는 사회연계형 교육 강화 ▲공공성 추구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공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를 중심으로 2024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리 학교는 위 개편 사항에 대한 대학본부 차원의 승인을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된 학사제도 공지 늦어

장해린 기자 sunblessyou@khu.ac.kr

3월부터 이수해야 할 과목과 요건이 변화되는 가운데, 변경된 학사 제도가 공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4학년도 수강희망과목담기가 시행돼 혼란이 있었다.

지난 12일 공지된 종합강의시간표에는 변경된 학사 제도가 공지되지 않은 채 과목 일부는 신설되거나 전공선택 및 필수 여부가 변경돼 있었다. 일례로 사회학과는 기존 전공필수 과목이었던 〈사회조사분석〉이 전공선택으로 변경됐으며, 〈여행사회학〉, 〈대학과 사회〉, 〈사회학으로 여는 세상〉 과목을 신설했다. 철학과는 기존 전공기초 과목이었던 〈동양철학의기초〉, 〈서양철학의기초〉를 폐지하고 각각 〈유가철학〉, 〈소크라테스〉로 변경했다.

수강희망과목담기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교육 과정, 졸업 등과 관련된 2024학년도 학사 제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고, 학생들 사이에선 혼란이 커졌다. 일부 학과는 해당 기간에 변경된 교육 과정을 안내하기도 했다.

박성초(스페인어학 2020) 씨는 “학교에 연락하니 단과대학 결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답변뿐 변경된 과목에 대한 명확한 공지를 듣기 힘들었다”며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되는 상황이라면 이와 관련된 공지가 최소한 수강희망과목담기 기간 이전에는 이뤄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국제캠 총학, 단체 명의 계좌 개설

고도희 기자 kdhhistory@khu.ac.kr

【국제】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생회 자치회비 징수 계좌가 개인 명의에서 단체 명의로 변경됐다.

국제캠 총학생회(총학) ‘러닝’은 개인 명의 통장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치회비 사용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총학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등록했고 단체 명의로 된 계좌 개설을 추진했다. 국제캠 총학은 지

난 10일 KEB하나은행에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양 캠퍼스 총학 모두 단체 명의 통장을 사용하게 됐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실제 법인은 아니지만,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다. 국제기본법에 따르면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 자신의 계산

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단체 명의 계좌는 청렴한 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인수인계가 가능하다. 현 총학에서 남은 회비를 차기 총학에 이월할 수 있어 임기 종료 후에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로운 입출금이 불가해 회

계 처리가 투명해지고 배임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국제캠 총학은 단과대학 및 학과 단위에도 단체 명의 계좌 개설을 장려했다. 국제캠 총학은 “보궐선거 예정인 예술·디자인대학을 제외한 단과대학과 중앙동아리 연합회 단위에서 모두 이번 학기에 단체 명의 계좌 개설을 위해 진행 중”이라며 “학과 단위는 중앙운영위원회의 협조를 구해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 전부 전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제캠 총학 김미소(한국어학 2021) 회장은 “단체 명의 계좌 개설은 자치회비 및 재정 사용과 관련한 신임을 회복하고자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학생이 직접 납부한 자치회비가 진짜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당 회의체에서 깊은 심의를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